

수출물량·금액 7달째 내리막...반도체 회복에 낙폭은 축소

한국은행, 7월 수출물량지수 -0.7%·수출금액지수 -8.6%

수산물교역조건지수, 전년동월대비 4.2%↑...7달째 개선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에 7월 수출물량과 금액 등 무역지수가 4개월째 동반 내리막을 지속했다.

반도체 수출 증가 등으로 하락폭은 2개월 연속 축소되며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7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금액지수는 100.60(2015=100)으로 전년동월대비 8.6% 하락했다.

지난 3월부터 5개월 연속 하락한 것이지만 지난 5월(-25.2%) 이후 6월(-

10.5%)에 이어 두 달째 하락폭이 줄어들었다.

석탄 및 석유제품(-42.8%), 기계 및 장비(-16%) 등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반도체 등이 포함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는 3.4% 상승했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수출무역지수가 금액 기준 8.6% 하락했다"며 "반도체와 컴퓨터 등을 중심으로 봉쇄조치를 완화한 일부 국가로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하락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수출물량지수는 112.86으로 전년동월대비 0.7% 하락하며 지난 4월(-13.2%) 이후

7달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화학제품(7.1%)과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6.9%) 등의 증가에도 기계 및 장비(-15.3%), 운송장비(-11.1%) 등이 감소한 영향이다.

달러율은 전월(-1.6%) 보다 축소됐다. 수입금액지수는 107.21로 전년동월대비 11.1% 떨어졌다.

기계 및 장비 수입이 금액 기준 37.5% 상승했으나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이 36.2% 줄었다.

수출물량지수는 115.18로 전년동월대비 0.5% 상승했다.

반도체 설비투자와 유럽 친환경차 판매에 따른 배터리 수요 증가 등으로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전자 수입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수산물교역조건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2% 상승해 7달째 개선세를 보였다.

수입가격(-11.6%)이 수출가격(-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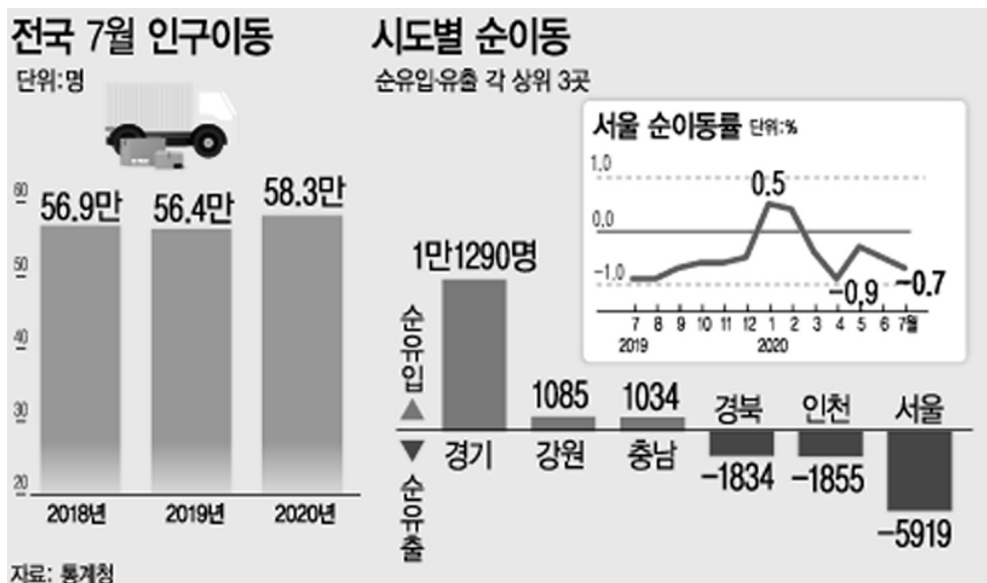
보다 더 큰 폭 하락한 영향이다.

수출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지수화한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4% 상승했다.

신봉우 기자

부동산 대책 발표 영향?...7월 인구 이동 5년 만에 최대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지난달 58만3천명 이동...3.4%↑



정부가 잇따라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7월 인구이동이 동월 기준 5년 만에 최대 수준을 보였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1년

전보다 3.4% 증가한 58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동월 기준 2015년 7월(62만 7000명)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다.

총 이동자 중 시도 내 이동자는 67.6%로 전년보다 4.4% 증가했다. 시도 간 이

동자는 32.4%로 전년보다 1.4% 늘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13.4%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p) 증가했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전·월세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11.8% 증가하고 입주 예정 아파트도 13.3% 늘어나는 등 주택 거래량이 증가했다"며 "전반적으로 주택 관련 지표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6·17 부동산 대책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연관 지을만한 지표가 없어 알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지난달 순이동(전입-전출)은 경기(1만 1290명), 강원(1085명), 충남(1034명) 등 7개 시도는 순유입, 서울(-5919명), 인천(-1855명), 경북(-1834명) 등 10개 시도는 순유출했다.

지난달 시도별 순이동률은 세종(2.3%), 경기(1.0%), 제주(0.9%) 등 순유입, 울산(-1.0%), 경북·인천(-0.8%) 등은 순유출했다.

김민정 기자

오비맥주, 11년만에 새 'CI' 공개

역사성·업종의 대표성 강조



오비맥주는 새로운 CI(기업 이미지)를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11년 만에 바뀐 새 CI는 오비맥주의 전통과 미래를 향한 혁신의 의지를 함께 표현한다. 오비맥주 고유의 'OB' 심볼을 사용해 맥주의 대명사가 된 '오비'라는 이름의 역사성과 업종의 대표성을 강조했다.

또 'O'와 'B'가 서로 관통하는 디자인

정승호 기자

은 '연결'과 '어우러짐'을 상징한다. 부드럽고 심플하게 변한 '오비맥주' 한글 글자체는 현대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를 반영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새 CI는 90년에 가까운 역사를 지닌 국내 최고 맥주 기업인 오비맥주의 전통과 미래를 향한 열정을 담아 탄생했다"며 "오비맥주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비맥주의 신규 CI는 오는 9월부터 오비맥주 홈페이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채널 등에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코로나 여파로 주문 밀리는 '온라인 장보기'

외출 자제 외식 꺼려 식료품배송↑

코로나 재확산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e커머스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외출을 자제하고 외식을 꺼리게 된 뒤 집에서 밥을 해먹는 횟수가 늘자 일부 업체에선 배송 서비스가 조기 마감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최근 닷새간 추가된 코로나 확진 환자는 1599명이다.

새벽 배송과 일반 배송을 모두 하는 SSG닷컴에선 지난주부터 일반 배송이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마감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9개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다. 코로나 1차 대유행이 진정된 후 재확산 직전까지만 해도 주문한 날에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날도 있었다. 저녁 때 주문하더라도 다음 날 오전이면 배송이 완료됐다. 하지만 광복절 연휴를 기점으로 코로나 2차 대유행 조짐이 보이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자 당일 배송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현재는 오전에 주문하더라도 다음 날 오후에나 받아볼 수 있다. 주문 당일과 다음 날 모든 시간대가 마감되는 상황이 나오기도 한다.

e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1차 대유행 때만큼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온라인 유통 매출이 늘어나고, 특히 장보기 서비스 수요가 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확산 직후인 지난 17~18일 SSG닷컴 매출은 전주 대비 9.6% 늘었고, 지난 주말(21~23일) 매출은 전주 대비 20.5% 증가했다. 주로 식료품을 새벽 배송하는 마켓컬리 매출 역시 전주보다 34% 올랐다. 일부 제품은 품절되기도 했다. SSG닷컴에선 밀키트 등 일부 제품이 일시 품절돼 주문이 불가능했다. 마켓컬리에서도 지난 주말 저녁이 되자 일부 식품을 주문할 수 없었다.

음식 배달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G마켓과 옥션에 따르면, 이달 1~24일 음식 배달 주문량은 전월 대비 18% 늘었다.

최이슬 기자

카드번호·유효기간 숨긴 '카카오페이 카드2' 출시

멤버십·대중교통 등 생활편의기능 담은 선·직불통합형 결제 카드



생활 금융 플랫폼 카카오페이가 차별화된 디자인과 멤버십·대중교통 등 생활 편의 기능을 담은 선·직불 통합형 결제 카드 '카카오페이카드2'를 26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카드2는 카드번호·유효기간 대신 원하는 메시지(최대 18자)를 넣을 수 있는 국내 최초 커스텀형 카드다.

카드 정보가 카드 플레이트에 노출되지 않아 보안성이 더욱 강화되는 장점이 있으며, 카드번호는 카카오톡 및 카카오페이앱 '페이카드' 메뉴에서 모바일로 확인 가능하다. 기존처럼 카드번호·유효기간이 있는 형태를 원한다면 신청 시 기본형을 선택하면 된다.

여기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라운드 형태의 카드 플레이트 디자인으로 더욱 차별화했다.

사각형 형태가 아니라 하단을 둥글게 처리해 부드럽고 감각적인 느낌을 더했으며,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한 라인·어피치·실루엣 3종 디자인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능도 새롭게 추가됐다. 카드 뒷면에 해피포인트, CI ONE, 신세계포인트, 이디야 등 38개 주요 멤버십을 적립·사용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멤버십 바코드가 새겨져 있어 더욱 편리하다.

카카오페이와 제휴된 멤버십을 사용할 수 있는 100여개 제휴사의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용 가능하며, 제휴 브랜드는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캐시비와의 제휴를 통해 카카오페이만의 자동충전형 선불교통카드 기능도 더해졌다.

편의점에 방문해 교통카드를 충전할 필요 없이 카카오페이머니로 자동 충전되며, 분실 및 해지 시에도 카카오페이머니로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 기존 선불교통카드의 불편함을 개선했다.

교통대금은 1~2일 이내에 사용한 만큼 카카오페이머니에서 차감되며, 잔액이 부족할 경우 카드 신청 시 별도 충전했던 초기 충전금 2만원에서 차감된다.

카드 발급 신청 단계에서 선불교통카드 기능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다양한 혜택도 준비되었다.

올해 말까지 카카오프렌즈 온라인 스토어 및 오프라인 매장(강남, 홍대, 부산 플래그십 스토어, DDP 등대문점, 전주 한옥마을점)에서 '카카오페이카드2'로 결제하면 20%가 캐시백 된다.

이 외에도 9월 말까지 결제할 때마다 월 30회 '알 리워드' 지급, 연말정산 30% 세액 공제 혜택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카드 발급 시 동봉되는 '카카오페이카드2' 상품 안내 설명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카카오페이카드2'는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 홈 화면에 진입한 후 '서비스' 탭에서 '페이카드'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2018년 1월 첫 출시한 '카카오페이카드'는 테크핀 업계 최초의 선·직불 통합형 결제 카드로, 금융계좌에서 충전한 카카오페이머니와 연결되어 전국 모든 오프라인 카드 가맹점에서 결제 가능할 수 있으며, 특정 기관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계좌를 연결하고 변경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다. 현재까지 누적 발급 수가 150만 장에 이른다.

서선욱 기자

구례 5일시장, 무등록점포 107곳 등록

24억 정책자금 신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광주중기청)은 호우피해복구와 정책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도우미 16명을 구례5일시장에 배치해 무등록점포 107곳의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앞서 지난 18일 이 시장을 방문해 무등록 점포에 사업자 등록을 조건으로 정책자금 지원 등을 약속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사업자 등록을 마친 점포는 구례5일시장 무등록점포 113개 중 107개로, 이들은 민원실 동행, 서류작성 등 전담도

우미들의 도움으로 등록을 완료했다. 이들은 총 24억원(59건)에 달하는 정책자금을 신청했다.

광주전남중기청은 수해복구 후 구례5일시장의 디지털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구례5일시장은 지리산 인근에 자리잡아 관광객이 많고, 산수유 등 지역 특산물로도 널리 알려졌다.

이현조 광주전남중기청장은 "이번 수해를 계기로 재난에 대비해 광주전남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과 풍수해보험이 연계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